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비주얼 펀 활용 비교 연구-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a study of visual pun for editorial illustration- focused on Korea and UK case

허경원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Kyungwon Huh
Faculty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윤주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Juhyun Eune
Faculty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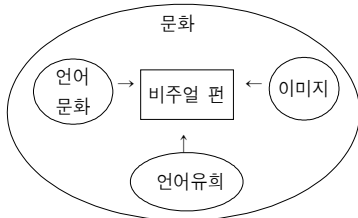
·Key words: Editorial Illustration, Visual pun, Verbal Culture, Visual Communication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생활 속 시각적 요소들에서 비주얼 펀(visual pun)을 사용하지 않는 매체를 찾기란 어려워졌다. 전달자들은 시각적인 유희를 표현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서려 한다. 비주얼 펀은 각 문화의 언어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언어는 모든 문화 현상의 바탕으로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고유의 언어문화를 바탕으로 각기 다양한 의미와 요소를 지닌 비주얼 펀이 탄생하게 된다. 언어문화가 시각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할 때 일러스트레이션 영역 안에서 어떻게 쓰여 왔으며 발전되었는지, 각기 다른 문화에서 비주얼 펀이 일러스트레이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림 1] 비주얼 펀의 구성 요소



1.2. 연구방법 및 범위

비주얼 펀의 사용 분야가 비주얼 전체에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정하며, 그 중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사용되는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다른 언어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비주얼 펀을 활용한 국내외 작품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2. 비주얼 펀과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2.1. 비주얼 펀

펀은 언어의 문자적, 은유적인 개념의 이중어를 사용하여 만드는 언어유희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각 문화에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펀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모든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반적인 표현보다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시각 언어를 포함하는 것인 비주얼 펀이다. 비주얼 펀은 문자적 펀, 암시적 펀, 비교의 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주얼 펀은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여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나

열하는 것보다 단순 명료하게 효과적이고 설득적인 내용을 지녀 효율적인 의미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비주얼 펀의 유형

	의미	특징
문자적 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직접적 표현	내용을 강하게 전달
암시적 펀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연상 작용	유머러스하게 전달
비교의 펀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	대비로 효과 극대화하여 전달

2.2.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명확한 주제를 갖고 그를 작가의 아이디어와 해석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그 중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은 잡지와 신문에 들어가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림으로 활자와 전파를 매체로 하는 정보와 내용 전달의 이해를 돕는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장르이다. 내용 전달이 그림의 중심이지만 정보를 하나로 압축, 요약하여 글 없이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러스트레이터의 글 해석방법과 표현 능력이 중심 되는 분야이다.

3.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비주얼 펀 효과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비주얼 펀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내용을 하나의 화면 안에 압축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비주얼 펀이 지니는 즉각적인 유머러스한 효과와 다종의 이미지를 표현한 분석적인 효과 모두가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서 나타난다.

3.1 비교 대상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중 범위를 신문과 주간지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한한다. 사례 분석을 위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영국, 두 나라를 선정하였다. 각기 다른 언어문화와 일러스트레이션 역사의 차이로 언어문화가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비교한다. 기존 사례 분석을 위해 신문과 주간지의 섹션 1면 메인타이틀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국가별 3점으로 선정하였다.

[표 2] 한국과 영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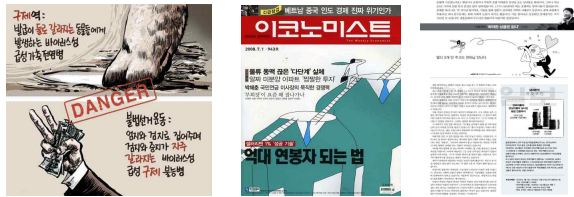
한국/	공통점	고유의 자국어 사용, 언어문화 발달,
-----	-----	----------------------

영국		출판매체내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활용
	차이점	인종, 종교, 시각적 제작물 사용에 사용되는 코드, 의미, 관습, 상징

3.2 한국의 사례 분석

한국의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 원리를 보면, 직설적인 문자적 편을 기초로 하여 은유의 편과 비교의 편 요소를 첨가하여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문자적인 편을 앞세움으로서 메시지의 단순화로 즉각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 전달을 돕는다.

[그림 2] 한국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박용석[중앙 만평] 강일구[주간 이코노미스트] 박무원[한국일보]
[표 3] 그림2 해석

	기표	의미	구성 원리
중앙만평	갈라진 발굽, 손가락 가르기	갈라진 수족을 가진 포유류의 공통 구제 불능 병	문자적, 비교의 편(두 개의 발 비교)
주간 이코노미스트	계단, 샐러리맨	샐러리맨이 역대연봉자 되는 법	문자적, 은유적 편(연봉을 올라가는 회사원)
한국일보	신랑, 신부, 열쇠꾸러미	열쇠 3개 안주기도 연하 남 만나다	문자적 편

3.3 영국의 사례 분석

영국의 사례에서는 은유적 편을 기초로 해서 이미지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그림안의 문자로 글이 바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이미지 자체에 은유로 형태나 의미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독자로 하여금 생각의 여지를 두어 바라보게 하여 원 개념을 표현한다.

[그림 3] 영국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The Daily Telegraph Scotland on Sunday The Guardian
[표 4] 그림3 해석

	기표	의미	구성 원리
The Daily Telegraph	펭귄사 심볼, 가장, 독서	영국 대형출판사 펭귄사	문자적 편
Scotland on Sunday	북극곰, 전구	에너지 절약 방법	은유적 편(해 대신 전구를 바라보는 북극 곰)
The Guardian	책, 도형	본인의 한계를 안다면, 스스로 행복해질수 있다	은유적 편(책 안에 도형 틀로 한계점 만듦)

3.4 작품 사례 제작

본인의 작품 사례와 인쇄매체에 발행되었던 작품 사례를 살펴본다.

[그림 4]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사례 제작



mind the poo 아줌마 Talk 아줌마사계절[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
[표 4] 그림4 해석

	기표	의미	구성 원리
mind the poo	런던 지하철 심볼	Mind the gap을 Mind the poo로 패러디	문자적, 은유적 편(심볼 변형)
아줌마 Talk	아줌마, 말 표현	한국 아줌마의 수다를 축어적 표현	문자적, 비교의 편(아줌마, 아저씨 모습)
아줌마 사계절	아줌마 걸모습	한국 아줌마의 외관 특징	은유적 편(외관 특징 묘사)

3.5 사례 비교 분석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세 가지로 구분된 비주얼 편 유형이 있지만 구성방식과 결과물에서는 다중적으로 반영되어 질수 있다. 한국은 문자적인 편과 그림 속 활자를 이용하는 반면, 영국은 은유적인 편을 바탕으로 함이 보인다. 비주얼 표현 방식과 편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영국 모두 자국의 언어 활자를 그림 안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비주얼 편은 각 문화와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화들의 시대와 이슈에 따라 변화하며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 시각 유희라 할 수 있다.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의 비주얼 편 접근성은 각 나라의 언어문화와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 시각에 따라 비주얼 편 사용 방법,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의 비주얼 편 사용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어떠한 표현 특징을 지니는지, 같은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다른 언어문화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이 직접적 문자적 편에서 다중적인 은유의 편을 활용한 작품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에 관한 추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워커, 사라 채플린, 비주얼 컬처, 2004
- 조용훈, 문화기호학으로 읽는 문학과 그림, 2004
- 박영원, 비주얼편 비주얼편, 시지락, 2003